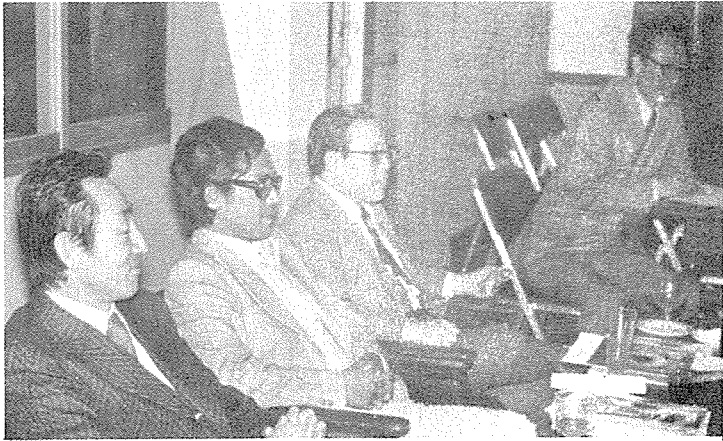


海外建築人母国訪問座談会

日 時：1974年 10月 10日 (午後 6時)

場 所：本協會 會議室



좌담회 光景

左로부터 吳雄錫氏
金星文氏
유덕호氏

參 席：吳 雄 錫 (前 本協會理事·編纂委員長) (司會)
劉 惠 鎬 (青光建築設計事務所 代表)
(大韓建築學會 副會長)
俞 景 哲 (三六建築研究所 代表)
(本會 編輯委員)
姜 錫 元 (불란서·파리)
金 鍾 星 (美國 시카고·工博)
金 星 文 (덴마크·코펜하겐)

금번 문화공보부 초청으로 내한한 「海外僑胞母国訪問團」 일
행중 海外建築界에서 활약하고 계신 建築家 두분이 함께 내한
하였다.

이번 「海外僑胞母国訪問團」은 韓國과 外交關係를 가지고 있
는 世界 各國에서 한분씩 代表로 추천이 되어서 내한케 된 것
입니다.

그 중 建築家 姜錫元氏는 불란서 파리 「韓國僑民會」會長으로
서 「建築設計事務所」를 경영하고 계시며, 韓國을 떠난지 八年
이나 된다.

또 建築家 金星文氏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設計 事務所”
를 開設하고 있으며 주로 公園, 道路, 어린이 놀이터 등의
造景計劃을 담당하고 있으며 韓國을 떠난지 15年이나 된다. 그
리고 최근에 美國 이리노이주工大에서 工學博士 學位를 받고,
일시 귀국한 建築家 金鍾星氏 세 분을 모시고 建築에 관한 좌
담회를 가져 보았다. (編輯者)

司會：오늘 이 좌담회는 이번 文化公報部 초청으로 海
外僑胞 母国訪問團의 一員으로 또한 韓國人 建築家
로서 異域万里 他國에서 韓國人의 일을 심고 있는
姜錫元, 金星文, 金鍾星博士 세분 建築人을 모시고
韓國建築界의 樣相에 對해서 느낀 所感을 청취해 봄
도 큰 意義가 있을 줄 압니다. 10年이면 江山도 變
한다고 했는데 참으로 오랫동안 母国訪問을 한 것같
습니다. 먼저, 이번에 母国을 訪問한 動機부터 말
씀해 주시죠.

姜錫元：네, 이번에 文化公報部 초청으로 海外 교포,
모국 방문단 43名中의 一員으로 建築關係人으로서는
덴마크에 계시는 金星文氏와 같이 왔읍니다.

司會：다음 金先生님께서는………?

金鍾星：저는 美國 이리노이洲 工科大学에서 講義를
맡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弘益大學校와 中央 大學校
에서 約 一年間 講義를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또
배우고 같까 합니다.

金星文：저도 姜錫元 氏와 같은 경우입니다만 독일과 한국을 거쳐 美国 等地를 두루 돌아보고 잘 予定입니다. 저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造景을 전공으로 이 係統에서 約 10年間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코펜하겐에서 개인설계사무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公園, 道路, 어린이 놀이터 등의 造景계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司會：故國에 對한 첫 印象이 어떠하셨는지요?

金星文：이번에 韓國에 來선 새로운 인상은 못 느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四季節의 기후적인 변화가 심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自然의 의존보다 現代 建築에 그대로 주입시켰기 때문에 調和가 되지 않은 허술한 감을 느꼈습니다.

造景에는 아무 나무나 使用하는게 아니라 造園樹를 따로 심어서 建物과 自然環境이 一致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 하나의 造景이 全体性和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造景의 發展을 위해서 보다 혁신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덴마크와는 정말 造景面에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俞景哲：金先生님께서 故國을 떠나신지는……?

金星文：15年前 出國했습니다. 20代였습니다.

俞景哲：姜先生님은 어떤 動機로 出國을 했습니까?

姜錫元：저는 1961年度의 國展이 動機가 되었습니다.

大統領賞이라는 영광이 저의 海外旅行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때 파리박람회 韓國館 담당 겸해서 平素 그리던 불란서를 왕복 아닌 편도의 비행기표가 다행하게도 오늘날까지 머물러 있게 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왕복권이였다면 이내 돌아왔을겁니다.

현재 제가 모시고 있는 “뱅크스” 교수의 研究室에서 一箇月 고용 계약으로 근무케 되었는데 한달이 잠깐이더군요. 계약 기간이 되어 내뺏길까봐 정말 不安하더군요. 그런데 多幸히도 제가 눈에 들었는지 계속 근무가 허용은 되었지만……. 이제는 또 言語의 不安때문에……. 이것도 정말 죽을 지경이더군요. 간신히 3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또 技術上의 苦充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研究所에는 韓國人으로서의 제가 처음인데 各國의 저명 建築家 들이 많이 다녀 갔더군요. 만 3년이 되던 어느날 하루는 뱅크스 교수가 저를 불러서 갔더니 봉투를 하나 주더군요.

俞景哲：호! 보너스였군요! 핫…….

姜錫元：핫……, 그게 아니올시다. 內容은 뱅크스 교수의 研究所에 對한 運營問題와 그 體制에 對한 구체적인 相議內容이었습니다. 현재 뱅크스 교수의 나이가 84才인데 이 研究室에 自己의 조카도 같이 일



左로부터 姜錫元, 金鍾星

하고 있는데 그 분과 또 다른 한 사람과 세 사람에게 25%씩 株 配當을 하여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人體制가 되는거죠. 그래서 1974年 7月 1日부터 이런 條件下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妻와 아이 둘, 肉食口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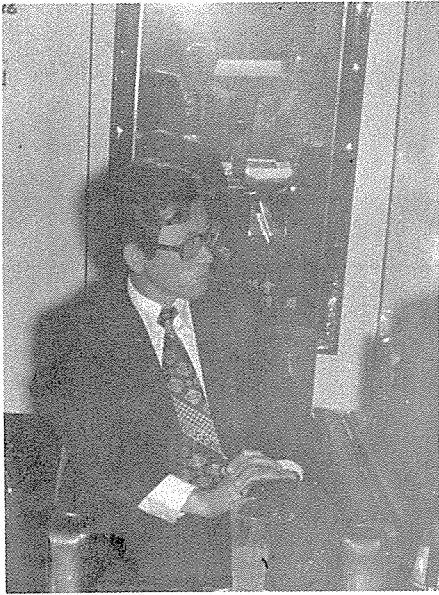
金鍾星：저는 1956年 工大 二學年때 渡美해서 시카고 이리노이주 工大 建築科長인 미스반데로네씨 밑에서 일도 했습니다. 그후 1966년부터 講義도 맡으면서 個人 建築事務所를 二年間 經營했습니다.

司會：現在 우리나라 首都인 서울의 都市계획과 諸般 建築分野에 對해서 느끼신대로 말씀해 주시죠.

金鍾星：서울의 거리엔 사람이 너무 많다는거 境界線이 넓어졌다는 것, 그리고 600萬이 넘는 人口가 모여 산다는 서울을 實感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서울이 急速度로 팽창하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中央庁 앞과 거리의 발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변화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金星文：한 말로 말해서 우리 서울의 거리는 西洋에서 빌려 온 느낌입니다. 우리의 古有한 전통을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都市란 歷史의 產物이요. 都市란 經濟, 文化, 科學의 產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서울에선 단결심이 不足하다는 것을 都市속에서 볼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집과 뒷집간의 关联性이 없습니다. 이러한 关联性이 없다는 것은 전통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造景問題도 하나같이 獨自의이며 全体的인 統一性이 없어 보입니다. 建物이나 造景이 너무 說明이 많아요. 디테일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自然의 배경속에 세워지는 建物이 自然과 关联性이 없습니다. 또 집들이 너무 密



유경철氏

集해 있어요. 이것을 單純化하고 個体が 單純한 集合体로서 콘트라스트가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姜錫元 : 저는 서울이 發展이라고 보기보다 自然的인 팽창기라고 보고 싶습니다. 파리는 파리의 냄새, 뉴욕은 뉴욕의 냄새가 있는데 우리의 서울에선 그런 독특한 냄새가 없는 것 같아요. 外國의 친지들이 韓國의 서울이 어떻게 생겼느냐? 묻는데 서울의 全景을 찍은 사진들이 대개 南山을 中心한 서울全景의 사진을 내놓기가 좀 민망스러워 지는데 그러나 古宮이나 韓屋이 담긴 사진을 보이면 對話가 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計劃性없는 都市計劃으로 몹시 추잡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高速道路의 計劃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高速道路변에 세워져 있는 宣伝간판 등은 좀 어울리지 않더군요.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의 都市가 빌려 온 느낌이라고 했는데 저는 빌려 온게 아니라 自然的 發展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金星文 : 저 쪽 (西歐)에선 西歐의 오랜 전통속에 여유있게 들어온데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갑자기 들여온 결과라고 하겠죠.

마치 갓쓰고 양복 입고 있는 것 같이... 또한 갓쓰고 양복입고 골프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좀 더 計劃的이고, 원대한 計劃아래 이루어져야겠죠.

俞景哲 : 세 분 先生께서 都市를 떠나 시골 風景을 보고 느낀 소감은 어떠했습니까?

金星文 : 오늘의 韓國의 시골 풍경은 사라진것 같은느낌입니다. 우리의 초가집들이 스투트 지붕으로 개량한 풍경은 좀 눈에 거슬리게 보이더군요. 덴마크에선 초가지붕을 한 번 입히면 50年間씩이나 갑니다. 거기다 防寒 防暑에서 좋구요.

姜錫元 : 김포의 三寸 墓所에 가 봤는데 옛집 모습은 다 그대로 있는데 지붕만 “^”型으로 고쳐 놓았더군요. 거기다가 원색을 칠한 지붕 풍경등은 주위 환경과 조화가 되지 않은 점은 地方色을 나타내는 統一性이 없는 것이 外國에 비해 좀 서운한 감이 들더군요.

金鍾星 : 제가 아는 어느 美國人은 韓國에 초가집들이 없어진 것이 매우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초가 지붕을 개량하여 스투트를 올려놓고 또 거기에 짙은 原色을 칠한 색깔들이 눈에 좀 거슬리더군요. 또 초가지붕의 線을 무작정 없애는 것 보다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통적인 美를 살리면서 시정해 나가는 그러한 정책이 아쉽다고나 할까요.

俞景哲 : 우리 “建築士”誌를 위해 좋은 말씀 있으시거든 이 기회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독자층이 넓으니 이점 생각하시고

司會 : 그리고 이 기회에 우리의 「古建築」에 관한 관심도 직접 들어 보고 싶습니다.

金星文 : 경북궁, 경정전 같은 古建築은 다시 없는 걸작으로 자랑하고 싶은 建築物이라 생각합니다.

空間처리나 造景이 잘 된 것 같아요.

姜錫元 : 제가 故國에 있을 때는 우리의 古建築에 대한 아름다움을 잘 느끼지 못했는데 外國에 나가서 몇해가 된 후에야 「建築士」誌에 실린 古建築을 보니까 정말 古建築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느꼈어요.

司會 : 우리 建築士誌에 계속 古建築이 소개되어 오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젠 그만 실었으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는 것 보다 몇 페이지라도 계속 우리의 전통 있는 古建築物 소개는 建築士誌에서는 꼭 소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建築士誌가 海外로도 30여권씩이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화제를 바꾸죠. 요즘 서구쪽에는 경기가 어떻습니까?

金星文 : 구라파에서는 건축붐이 많이 둔화 된데다가 디렘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姜錫元 : 불란서에서도 休業者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大家의 時代는 지나고 分業單位, 그룹体制化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金星文 : 建築系의 樣相이 한 말로 말해서 독점, 독재는 없어져가고, 民主化 돼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建築家와 市民이 합치해서 市民들의 의견이 직접 설계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司會 : 設計事務所의 構成人員은 대개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金星文: 대개 20名 정도가 보통입니다.

司會: 여기처럼 하청제도도 있습니까?

金星文: 네, 있습니다. 여기처럼 하청업자들끼리 “콤미손”을 준다는가 하는 일은 없고 그대신 연말 같은때 洋酒선물을 합니다.

司會: 구성원의 學歷 程度는 어떻습니까?

金星文: 20名 中 15名이 Drafts man입니다. 봉급은 大學 卒業後 5年 경력 수준인데, 月 1,500\$ (약 600,000원) 타는데 이 중에서 55%가 사회보장 보험료를 포함한 제세금으로 공제됩니다.

그런데 4人 家族이면 30%가 공제됩니다.

姜錫元: 불란서에는 Drafts man이 없고 設計 事務所에서는 일단 일을 맡으면 청부업자 会社로 갑니다. 청부업자 측에서는 Drafts man 과 構造關係要員을 構成해서 作業을 착수합니다.

그런데 불란서에서도 한국과 비슷한 비밀 입찰 형식이 있고, 덤핑이 있어 1億프랑을 基準으로 40%까지 들어 옵니다. 大小工事を 막론하고 대개 30~60 個 業체가 경쟁을 합니다. 또 불란서에는 建築家와 施工者間의 會議制度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란서에서는 高等學校 5, 6학년이면 대개 結婚을 합니다만 失業者는 노동청과 같은 곳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金星文: 덴마크에서는 中央建築研究所라는 機構가 있어서 一定한 工事基準이 있고 製品도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建築資材도 中央建築研究所의 검열을 받아야 합니다. 이 中央建築研究所는 國家 機構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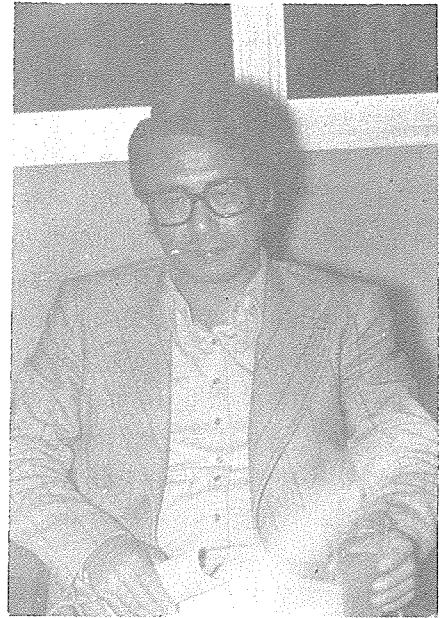
金鍾星: 이건 美國의 例입니다만 施工者는 변경 있을 적마다 건축주에게 그 비용을 청구합니다.

(大家의 時代는 지났다)

金鍾星: 오늘날, 大家의 時代는 지났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날의 建築家는 建築主가 원하고 있는 것이 뭔가?를 專門家로서 해결하는 단계가 왔다고나 할까요. 現在 美國에서는 좀 큰 機構면 30名 정도인데, 作家의 態度는 두가지 種類로 区分한다고 봐요. 하나는 비즈니스 型과 하나는 순수예술 型으로 区分지을 수 있겠어요.

하나의 作品을 世上에 내 놓기 까지는 오랜 時間 동안 改作하고 또 改作하고 해서 世上에 내 놓는데 이러한 作家的인 態度야말로 존경의 대상이 되겠죠.

姜錫元: 제가 모시고 있는 뱅크스教授는 그가 平生을 通해서 製作한 作品을 보관하고 있어요. 設計事務所의 다락위에 가득히 쌓여 있어요. 그 위에 먼지가 뿌얹게 쌓여 있어서 영구 보존책으로 쥬-브에 넣어서 보관하자고 제의를 했더니 응해 줬어요. 그래서 쥬-브에 넣으면서 한장한장 보았는데 1,800年代作



金星文氏

品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金重業氏의 卍인인 積된 設計圖面도 發見되었는데 아주 귀중한 산 증거가 될 줄 압니다. 뱅크스 教授의 40年間 호텔 作品을 보니까 심지어 창문에 다는 커튼색으로 부터 호텔 보이 의 제복까지 디자인을 해 놔드군요.

俞景哲: 인원은 몇 사람 정도입니까?

姜景哲: 약 40名 됩니다.

俞景哲: 밤을 세우기도 하나요?

姜錫元: 물론이죠. 저의 뱅크스 教授는 하루 평균 15 時間정도 일을 합니다.

俞景哲: 事務所를 自營하고 있는 所感은?

金鍾星 不動產業者를 쫓기에 바쁩니다.

吳雄錫: 設計事務所 等の 營業양상은 어떠합니까?

金鍾星: 專門分業化 되었다고 할까요. 病院設計는 누구에게, 學校設計는 누구에게, 하는 식으로 파트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젊은 建築家가 自立하기 어려운 점은 改造 建築이나 쫓아보면 낙인이 찍히고 맙니다. 또 10名~15名으로 구성된 아파트 전문이 있습니다.

俞景哲: 東洋人이기에 不利한 點은 없는지요.

金鍾星: 東洋人이 技術上으로는 월등한데 資本主를 구하는데 큰 고충이 있습니다.

司會: 外國에 나갔다 돌아오면 느끼는 氣分인데 왜 그렇게도 調和가 없고, 허전한지 모르겠어요.

姜錫元: 吳先生님께서 外國엔 造景들이 잘 調和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造景美가 너무 不足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어느 外國의 造景을 우리나라에 도입해 온다면 또 다른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전통적이고 주체성 있는 造景을 꾸며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긴 안목과 계획으로 가꾸어 나가면 될 줄 압니

다.

姜錫元 : 造景에는 비단 향나무 같은 나무를 사용하는 것 보다 성장시간이 빠른 관상수를 많이 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金鍾星 : 팽창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환경정리나 造景문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탓이겠지만 造景計劃에 따른 어떤 법규가 必要할 것 같아요. 너무 中央 집권적인 통제가 독주하다 보니 그 地方에 따라 자치성이 결여된 것 같아요.

司會 : 現在 우리나라에도 그 地方別 都市計劃에 따른 각종 條例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전면적인 조종 내지는 地方特色의 계획이 뚜렷치 않다고 봅니다.

俞景哲 : 특히나 우리나라에선 建築物의 4 面의 재료와 색이 다르다 보니 建物들이 우선 추하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金鍾星 : 모양을 내기 위한 것은 좋으나 調和를 이루어야 하겠죠.

金星文 : 우리의 과거 생활 배경이 원대한 計劃을 이루지 못한 原因이 되었다고도 생각합니다만.

俞景哲 : 韓國現代建築은 집약해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이고 나만의 生活을 위해서 이루어 지다 보니……, 오늘과 같은 난립상을 면치 못한 줄 압니다. 우리 모두 이마를 맞대고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金星文 : 작년 세계적인 油類파동으로 덴마크 全國에 約 900個所의 建築事務所가 있었으나 1974년에는 그 반으로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司會 : 金鍾星先生님으로 부터는 美國의 「設計보수 요율표」에 관한 DATA를 받았읍니다만, 두 분께서도 돌아가시는대로 閉장 보내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金星文·姜錫元 :

金星文 : 현재 덴마크에서는 90%가 合同事務所體制인데 韓國과는 정반대의 경향입니다.

姜錫元 : 불란서 파리에서는 50%가 合同으로 株式體制입니다. 構成人員은 약 10名 안팎입니다.

金鍾星 : 美國에서도 90%가 合同事務所의 株式體制입니다.

司會 : 教育課程은 어떠한지요?

金星文 : 고등학교 3年(국가고시) 후 테크닉 1年半後 1年은 實習을 합니다. (페인트와 콘크리트中 택일) 그런 후 大學의 정규과정으로 들어갑니다.

司會 : 大學에서 建築은 어느 大學에 屬합니까?

金星文 : 美術大學속에 建築科를 두고 있습니다.

司會 : 오늘 바쁘신 時間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돌아가신 후 자주 書信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 감사합니다.

협회의 발전을 축하드립니다.